

전주시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

시·환경부·전북도·대회 조직위, 2일까지 탄소중립 대토론회·탄소중립 대국민 선언·기조강연 등 진행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생태도시로 이룰 정책들을 정부, 전국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공유했다.

전주시와 환경부, 전라북도, 2021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30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등 전주 일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희망, 탄소중립에 답다'를 주제로 '2021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를 개최했다.

10월 2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는 정부와 기업, 시민 등 모든 주체가 동참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로,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전국을 돌며 추진되고 있다.

대회 첫날인 30일에는 기념식과 함께 김승수 전주시장의 정책 발표와 탄소중립 대토론회, 2021년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시상식, 탄소중립 대국민 선언 in 전주 퍼포먼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기조강연 등이 진행됐다.



전주시와 환경부, 전라북도, 2021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30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등 전주 일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희망, 탄소중립에 답다'를 주제로 '2021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를 개최했다.

김승수 시장은 이날 △에너지전환도시 △생태교통도시 △지역재생 및 그린 리모델링 △전민그루 정원도시 △생물다양성 및 동물복지 △로컬푸드와 지역경제순환 등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그동안 적극 추진해 온 전주시 도시정책 사례들을 소개했다.

탄소중립 대토론회에서는 이은순 목사와 고상백 연세대학교 교수, 임경수 전 경기일자리재단 본부장 등이 농업, 건강과 복지, 일자리 등 분야별 실천 과제들이 논의됐으며, 탄소중립대국민

선언에서는 한영에 환경부 장관과 김승수 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등 13명의 대표가 미래세대 아이들의 호소문에 답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어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둘째 날인 1일에는 △탄소중립 △성평등 △조직문화 △공공녹색구매 △ESG △ESG △지속가능발전과 청년 △생태 교통 △자원순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학회 학술대회 등 9개의 주제세션과

전주의 지속가능한 현장을 알아보는 현장세션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에는 전라감영에서 자전거로 떠나는 전주문화탐방과 함께 가정의 지속가능발전 목표현황을 확인하는 '우리집 SDGs 공동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코로나19로 기존 계획보다 축소된 이번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는 기념식과 주제세션 등이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0여 년 전부터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온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의 역할이 시간이 갈수록 더 소중하고 절실해지고 있다"면서 "생태도시를 향해 가고 있는 전주에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영감과 에너지를 교류하고 실천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제24회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는 보령에서 개최된다.

전주시 홈페이지 안전성·이용 편의 개선

특히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유튜브브와 함께 시정소식지 '전주다움', 한바탕 전주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을 꾸몄다.

이와 함께 시는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공지를 통해 기존 회원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회원제 서비스를 전면 폐지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회원 로그인에 대신해 휴대폰,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네이버, 카카오 등 다양한 본인인증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주시 홈페이지 안전성·이용 편의 개선

전주시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gu.go.kr)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인 디자인과 기능을 부분 개편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홈페이지 메인 디자인의 경우 2050 탄소중립이나 전민그루 정원도시, 책이 숲이 되는 책의 도시 등의 전주시 주요 정책이 표출되도록 했으며,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서비스와 새소식 등이 상단에 보여지도록 하는 등 메뉴체계를 재분류했다.

또 팝업 및 알림존을 별도 페이지로 구성해 주요 안내사항을 모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전주시 완산구, 가을철 식중독예방 컨설팅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가 가을철 식중독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

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위생이상 대적으로 취약한 횡집 및 유류 등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1주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횡집, 육회취급업소, 김밥집 등 일반음식점 50여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ATP(초간단 간이세균 수치 측정기)를 통한 식재료 검수부터 최종섭취 단계까지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조리종사자, 조리

구의 오염도를 측정해 업주에게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해주고, 업소별 맞춤형 식중독 예방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생선·야채용 칼·도마 구분 사용여부 ▲지하수 사용 여부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업소의 청소·소독과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식재료 보관창고나 냉장·냉동 설비 등 환경위생 관리상태를 중점 확인하고, 식중독 예방수칙 등 현장교육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선미촌리빙랩 여행길 콘서트 열려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 미술·댄스 등 다양한 공연 진행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서노송예술촌에서 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연이 가을밤을 수놓았다.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는 지난 30일 서노송동 불영빌2길 일원에서 '2021 선미촌리빙랩 여행길 콘서트'를 개최했다.

여행길 콘서트는 선미촌이 여성이 행복한 길(여행길)로 전환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선미촌 내 빈업소를 활용해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임시 상점)를 홍보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콘서트는 송원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대표의 진행으로, 이단비 미술사의 미술공연과 함께 시작됐다. 이어 △낭독 공연 '여:時' △퓨전국악 선율모리와 무용(정민아) △여성밴드(4인) 공연 △댄스 공연



(HANGLOOSE) △뮤지컬 공연(아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콘서트 영상은 성평등전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선미촌 내 빈업소를 활용해 △예술전시 △3D 퍼즐체험 △원데이클래스(드로잉, 원예) △한지 및 법집 공예 △홈베이킹 카페 △팝업이클링 퍼니처 전시 △브런치카페 등 총 7곳의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에 있다.

김윤삼 기자

한옥마을 공유운송차 '다가온'

전주시, 주말·공휴일 차 없는 거리 불편 해소 위해 총 2대 운행

주말과 휴일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는 전주한옥마을에 교통약자와 관광객들의 이동을 돕고 인근 상가들의 물건 운반을 지원할 차량이 운행된다.

전주시는 2일부터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한옥마을 일원에서 공유운송차인 '다가온'을 운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다가온'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는 한옥마을 일대를 구석구석 운행하면서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거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불편을 덜어 주고, 인근 상가의 물건을 원하는 곳까지 운반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운행 차량은 총 2대로, 한옥마을에 공유운송차장과 남천교 등 11곳의 차량통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기하게 된다. 차량은 한옥마을의 특성과 골목길 접근성, 운송차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소형 친환경 전기차로 준비됐으며, 슬라이드 방식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시민 또는 관광객이 운행차량별 콜(핸드폰)로 이용을 신청하면, 공유운송차가 찾아가 주차장이나 거주지, 숙소 등으로의 이동을 돕거나 상가의 물건을 운반해주게 된다. 이용 요금은 무료다.



한옥마을에 공유운송차 '다가온'이 도입되면 공유주차장에서 숙박업소까지 캐리어를 운반하는 관광객은 물론 거주민과 상가 운영자, 숙박업소 등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품격 있는 공유운송차 운영을 위해 운전원의 친절서비스 향상에도 공을 들일 방침이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거점도시의 중추적 공간인 한옥마을 거주민과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운송차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됐다"면서 "전주한옥마을을 누구나 이동이 편리한 무장애 열린 관광지로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가온'이라는 명칭은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다가온다'라는 뜻과 '온다'와 '완전한'의 의미를 가진 '온'에서 따와 정해졌다. /김윤삼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